



■ 반추가축과 조사료의 중요성

- 조사료는 반추가축의 기본 사료로서 주요 에너지와 섬유질 공급원이다. 특히 육성기에는 반추위의 정상 발달과 저작·반추 기능 형성을 위해 양질 조사료 급여가 필요하다.
- 조사료 급여가 부족하고 농후사료 급여가 과다할 경우, 반추위 과산증, 소화 장애, 대사성 질병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반추위 기능과 건강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사료 급여가 필요하며, 이는 번식 성적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 반추가축에서 조사료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질 경우 제1위 pH가 감소하고, 초산(acetate) 생성 비율이 낮아지는 반면 프로피온산(propionate) 생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젖소에서는 유지율 저하와 산유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한우에서는 과산증 및 이에 따른 소화기 장애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 조사료 급여수준

- 건초만 급여할 경우 체중 100kg당 2~3kg(건물 기준) 섭취가 가능하다.
 - 건초 1kg은 사일리지 2.5~4.5kg에 해당한다.
 - 양질 건초 3kg은 곡류사료 2kg과 유사한 사료가치를 나타냄.
- 방목우는 체중의 약 10~15% 수준(1일 45~90kg)의 생초를 섭취할 수 있다.
- 품질이 낮은 건초나 볏짚은 섭취량이 제한되어, 체중 100kg당 최대 1kg 내외만 섭취 가능하다.
- 젖소는 하루 총 건물섭취량의 최소 1/3 이상 또는 체중의 1.5% 이상을 조사료(건물 기준)로 섭취해야 한다.
- 전체 사료 건물 중 최소 ADF(Acid Detergent Fiber, 산성세제섬유) 19.4% 또는 조섬유 17% 이상을 유지해야 반추위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 조사료는 길이가 약 1cm 이상이어야 저작과 반추 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
- 젖 생산을 위한 이상적인 조사료 : 농후사료 비율은 60 : 40 수준이다.